

# 日本 現存 實物 古活字의 特徵 研究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Early Types in Japan

曹 炯 鎮 (Cho, Hyung-Jin)\*

## ◁ 목 차 ▷

- |                   |                   |
|-------------------|-------------------|
| 1. 緒 論            | 6. 天海版 實物 古活字의 特徵 |
| 2. 現存 實物 古活字의 概要  | 7. 高野版 實物 古活字의 特徵 |
| 3. 駿河版 實物 古活字의 特徵 | 8. 現存 實物 近世活字의 特徵 |
| 4. 伏見版 實物 古活字의 特徵 | 9. 結 論            |
| 5. 宗存版 實物 古活字의 特徵 | <참고문헌>            |

## < 초 록 >

- (1) 일본 현존 고풍자는 7종이 있다. 이들은 동체의 크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혼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 (2) 각각이 보관용 상자에, 한자의 부수와 필획 순 또는 일본어 발음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 (3) 활자의 종류는 대자·소자·假名(일본 문자) 활자·연각 활자·음각 활자·기호 활자 등이 있다.
- (4) 활자의 동체는 대부분 방정한 육면체이다. 문자면의 문자 가장자리는 평평히 다듬지 않고 사선으로 1.1~10.2mm 정도로 깊이 깎아내렸다. 문자는 거의 대부분이 문자면에 가득 차지 않았다. 그 편차는 각각이었다.
- (5) 활자의 배면은 평평한 형태, 역V자형, 사다리꼴형, 드물게 반원통형 등이 있다. 그러나 그 높이가 균일하지 않고, 5.0mm 이내로 높지 않아서 조판의 편리를 위한 기능 정도로 보인다.
- (6) 필획을 조각하기 위한 산의 각도는 30° 정도의 경우도 보일만큼 완만한 경우가 많다.
- (7) 산의 깊이는 0.1~2.5mm로, 대체로의 평균은 1mm 정도로 매우 얇다.
- (8) 여러 조판용 부속품은 판본을 통한 인쇄 기술 연구의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

要語: 日本 현존 고풍자, 활자의 동체, 문자면, 배면, 산의 각도, 산의 깊이, 조판용 부속품

## < ABSTRACT >

- (1) Seven sets of Japanese early types are existing to date in Japan. They are somewhat different in the body size, making it very hard to use them together.
- (2) Each set is kept in storage boxes and arranged in either Chinese alphabetical order or Japanese pronunciation order.
- (3) Types include big type, small type, Japanese character type, multiple-character type, engraved type, and symbol type.
- (4) The body of almost all the types is regular cube shape. The edge of the character face was not carved flat, but slantly cut by the depth of 1.1~10.2mm. Almost all the characters did not fully fill the character face. Each had its own variation.
- (5) The type bottoms include flat shape, inverted V shape, ladder shape, and rarely semi-cylindrical shape. However, the groove height is not constant and within 5.0mm, seemingly functional for the convenience of typesetting.
- (6) The character stroke was carved in a gentle slope, with a few cases in the slope of 30 degree.
- (7) The depth of carving was 0.1~2.5mm and very shallow, with an average depth of 1mm.
- (8)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ypography through the printing edition are verified by various parts of the typesetting.

Key words: existing Japanese early type, body of type, character face, bottom of type, slope of character stroke, depth of character carving, parts of typesetting

\*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교양학부 교수(chohj@kangnam.ac.kr)

투고일: 2019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8일  
서지학연구, 제80집, 29-63,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29>

## 1. 緒論

활자 인쇄 기술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인쇄의 결과물인 판본을 분석하여야 가능하다. 이와 아울러 필수적인 요소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인쇄에 사용된 도구이다. 이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활자이며, 인판을 구성하는 조판용 부속품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활자와 조판용 부속품을 통하여 기술적 요소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인쇄의 결과물인 판본이 생산된 후에는 판본 생산에 동원된 각종 도구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무시되어 잊혀지거나 사라지기 일쑤다. 그 결과 대부분의 활자와 조판용 부속품들이 거의 사라져 오늘날 그 진면모를 살펴볼 수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일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서 과거 판본 생산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일본의 현존 실물 고활자와 조판용 부속품은 문헌 또는 인적 정보와 함께 현장 답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일부는 열람의 기회를 얻지 못하여 문헌 자료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열람을 허락받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본 고활자 인쇄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현존하고 있는 실물 고활자와 조판용 부속품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고활자와 조판용 부속품 등의 실물을 직접 분석하는 실물조사법과 직관법을 주로 하고,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을 병용하였다. 관련 문헌 자료는 참고할 내용이 적지 않으므로 실사 내용을 보완하거나 실사하지 못한 경우에 활용하였다. 다만 문헌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필자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연구 내용의 서술은 고활자 관련 문헌 자료도 적지 않지만,<sup>1)</sup> 기본적으로 직접 실사한 경우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다만 天海版은 필자가 조사를 위한 열람을 요청하였을 때, 관리자로부터 정리 중인 관계로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 조사보고서<sup>2)</sup>의 기술적 요소를 추출하여 보충하였다. 활자와 아울러 조판용 부속품도 병술하였다. 근세활자를 고활자 연구에 접인한 이유는 고활자의 부족한 요소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현존 고활자의 개요·현존 실물 고활자 5종의 특징·현존 실물 근세활자의 특징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술적인 요소는 문자만으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자료를 다수 첨부하였다.

---

1) 印刷博物館學藝企劃室·凸版印刷株式會社エディトリアル研究室編, 『印刷博物館開館特別企劃展圖錄: 江戸時代の印刷文化-家康は活字人間だった!!』(東京: 印刷博物館, 2000). ; [重要文化財審議委員會]編, 『重要文化財議案説明書: 歴史資料の部』(東京: [重要文化財審議委員會], 2000). ; 京都教育委員會編, 『円光寺所藏伏見版木活字關係歴史資料調査報告書』(京都: 京都教育委員會, 1991). ;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編,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圖版編)』(大津市: 滋賀縣教育委員, 2000). ;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編,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本編)』(大津市: 滋賀縣教育委員, 2000).

2) 渡邊守邦 等, 『寛永寺藏天海版木活字を中心とした出版文化財の調査・分類・保存に関する総合的研究』(科學研究費基盤研究(A)(1)平成10~13年度研究成果報告書)(東京: 實踐女子大學, 2002).

## 2. 現存 實物 古活字의 概要

지금까지 문헌 기록과 발견된 실물 등에 의하여 확인된 고활자는 모두 7종이며, 이들은 11곳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 참조).

### 2.1 駿河版 銅活字

駿河版 고활자는 재질이 銅이다. 따라서 駿河版 銅活字라 칭한다. 이는 3차에 걸쳐서 주조되었다. 1차는 1606년에 91,261개(대자 55,360개, 소자 35,895개, 오차 6개)를 주조하였다. 2차는 1615년에 10,368개(대자 8,844개, 소자 1,514개, 丁付字=張次용 활자 10개)를 보주하였다. 이때 목활자 5,889개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1차 주조분의 재고는 89,814개(대자 58,646개, 소자 31,168개)로 1,447개가 유실되었다. 3차는 1616년에 13,000개를 주조하였다. 이는 元和 원년(1615)부터 2년(1616)까지의 2년간 서적 간행에 사용되었다. 기타의 문화사적 기술사적 내용은 줄고를 참조하기 바란다.<sup>3)</sup>

駿河版 銅活字는 德川家康 사후, 駿府 藩主인 德川賴宣이 계승, 紀州로 轉封되어 紀州藩의 소유가 되었다. 弘化 3년(1846) 대화재로 2/3가 소실되었다. 明治維新 이후 紀州 德川家が 東京로 이주하여, 明治 31년(1898)에 개설한 南葵文庫로 귀속되었다. 그 후 2곳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 2.1.1 凸版印刷博物館 所藏

昭和 15년(1940) 南葵文庫가 해체될 때, 銅大字 866개, 銅小字 31,300개, 목활자 5,813개, 합계 37,979개와 木製 印版 광곽 틀 2면, 銅 匡郭材 18개, 銅 界線材 88개 등이 東京 소재의 凸版印刷株式會社에 양도되었다. 昭和 37년(1962)에는 文化廳에 의하여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sup>4)</sup> 凸版印刷(株)는 2000년 凸版印刷博物館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 2.1.2 東京大 總合圖書館 所藏

南葵文庫를 大正 13년(1924) 東京帝國大學 부속도서관에 기증할 때, 동활자도 우수한 표본을 선별하여 기증한 것으로 보인다.<sup>5)</sup> 그 결과 현재 東京大學 總合圖書館에 銅大字 111개, 銅小字

3) 曹炯鎭, “日本 駿河版 銅活字의 製作過程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4(2002. 12), 89-129.; 曹炯鎭, “日本の 駿河版은 朝鮮의 活字인가?” 『書誌學研究』 26(2003. 12), 5-23.; 曹炯鎭, “日本 駿河版 및 紀州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60(2014. 12), 71-107.

4) (日本)文化廳編, 『國寶·重要文化財總合目録: 美術工藝品編』(東京: 第一法規出版(株), 1980), 295.

207개, 木大字 70개, 木小字 37개, 합계 425개와 木製 印版 광곽 틀 1면, 銅 匡郭材 4개(상하좌우 각 1개씩) 1조, 銅 界線材 20개 등이 소장되어 있다.

## 2.2 伏見版 木活字

이는 慶長 4년(1599)부터 11년(1606)까지의 8년간 서적 간행에 사용되었다. 기타의 문화사적 기술사적 내용은 줄고를 참조하기 바란다.<sup>6)</sup> 伏見版 木活字 실물은 2곳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 2.2.1 円光寺 所藏

円光寺에 伏見版 木活字 실물 대부분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는 깨끗이 정리되어 전문 수장고에 관리되고 있다. 1992년 문화청에 의하여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2.2.2 京都府立總合資料館 所藏

京都府立總合資料館에도 약간의 伏見版 木活字 실물이 소장되어 있다. 소장 경위는 자세하지 않다.

## 2.3 宗存版 木活字

이는 慶長 18년(1613)부터 寬永 원년(1624)까지의 12년간 서적 간행에 사용되었다. 기타의 문화사적 기술사적 내용은 줄고를 참조하기 바란다.<sup>7)</sup> 宗存版 木活字 실물은 延曆寺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는 깨끗이 정리되어 전문 수장고에 관리되고 있다. 2000년 10월 20일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2.4 天海版 木活字

寬永寺 開山堂에 소장되어 있다. 이는 寬永 14년(1637)부터 慶安 원년(1648)까지의 12년간 서적 간행에 사용되었다. 기타의 문화사적 기술사적 내용은 줄고를 참조하기 바란다.<sup>8)</sup>

5) 전 慶應大學 斯道文庫 尾崎康 교수의 전언.

6) 曹炯鎭, “日本 伏見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59(2014. 9), 65-101.

7) 曹炯鎭, “日本 宗存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70(2017. 6), 117-144.

8) 曹炯鎭, “日本 天海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76(2018. 12), 25-52.

## 2.5 高野版 木活字

이는 慶長 9년(1604)부터 正保 2년(1645)까지의 42년간 서적 간행에 사용되었다. 기타의 문화사적 기술사적 내용은 줄고를 참조하기 바란다.<sup>9)</sup>

### 2.5.1 東大寺 圖書館 所藏

목활자 4,345개 1함이 소장되어 있다. 소장 경위는 자세하지 않다.

### 2.5.2 高野山 西禪院 所藏

木活字 3,234개가 소장되어 있다. 소장 경위는 자세하지 않다.

### 2.5.3 天理圖書館 所藏

東大寺 木活字 7개를 소장하고 있다. 소장 경위는 자세하지 않다.

## 2.6 心蓮院版 木活字

1989년 5월 京都市 仁和寺 心蓮院에서 心蓮院版 『倭玉篇』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大小 목활자 약 2,000개가 발견되었다. 이는 慶長年間の 『倭玉篇』 간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판본의 활자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 2.7 性海寺 所藏 木活字

愛知縣 稻澤市の 眞言宗 性海寺에 약 15,000개의 활자가 소장되어 있다.

---

9) 曹炯鎮, “日本 高野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72(2017. 12), 145-168.  
10) 讀賣新聞, 1989년 5월 30일. ;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編(2000), 6.

<표 1> 일본 현존 실물 고헌자<sup>11)</sup>

	활자명	소장처	수량(개)	크기(縱×橫×高) <sup>12)</sup> (mm)	기타(개)
1	駿河版 銅活字 1606,1615-1616(2년간)	凸版印刷博物館	동대자 866 동소자 31,300 목소자 5,813 합계 37,979	동대자: 12×16×18 동소자: 12×8×18	木製 인판 틀 2면 동광곽재 18 동계선재 88
		東京大 総合圖書館	동대자 111 동소자 207 목대자 70 목소자 37 합계 425	동대자 “介” 12,3×16,3×17,8 동소자 “以” 12,4×8,0×17,1	목제 인판 틀 1면 동광곽재 4 동계선재 20
2	伏見版 木活字 1599-1606(8년간)	円光寺	대자 26,700 소자 3,500 18,560+1,570 頭註자 15 片假名자 1,600 특수자 350 합계 52,315	대자: 12×17×18~20 소자: 12×8×20 假名자: 8,0×19,8×20 별치자: 11,9×16,3×17,2	광곽재 계선재 소형 부속
		京都府立総合資料館	대자 145 소자 767 합계 912	“閉” 12,3×16,9×20,1 “陌” 12×8,5×19,9	
3	宗存版 木活字 1613-1624(12년간)	延曆寺	특대자 274 대자 139,312 (+충손 13,604) 소자 9,707 (+충손 363) 부정형자 624 합계 149,917 (+충손 13,967)	특대자 14,88×14,23×18,52 대자 12,43×14,26×18,54 “造” 12×14,2×18,9 소자 12,3×7,07×18,58 “第” 12×6×18,3	행간재 자간재 괘선재 그림 판목 등 10,377개
4	天海版 木活字 1637-1648(12년간)	寛永寺 開山堂	268,044	12,6×13,8×18,4	
5	高野版 木活字 1604-1645(42년간)	東大寺 圖書館	4,345	대자: 10,5×12×17 소자: 10,7×5,9×17	
		高野山 西禪院	3,234		
		天理圖書館	7		東大寺木活字
6	心蓮院版 木活字	仁和寺	大小자 약 2,000		
7	性海寺 소장 木活字	性海寺	약 15,000		

11) 이밖에 (1) 三重縣 津市の 天台眞盛宗 西來寺에 근세 목활자 약 1,200개, (2) 天理圖書館에 조선 목활자 50개, 서양 활자 父型(강철재 대형과 중소형)과 이에 병용하던 대·소형 그림 판목이 소장되어 있다.

12) 縱=長=길이, 橫=寬=幅, 高=키=높이로 표현하기도 한다.

### 3. 駿河版 實物 古活字의 特徵

#### 3.1 凸版印刷博物館 所藏

##### 3.1.1 活字의 保管 및 排列 狀態

활자 보관용 상자에는 서랍이 5개씩 있다. 銅大字는 상자 1개의 5개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데, 배열은 서랍의 우상귀부터 종으로 좌하귀까지 10행 20개씩 197개, 191개, 193개, 191개, 90개 합 862개(오차 -4개)가 각각 담겨있다(<표 2> 참조). “依” 1개와 오차 4개는 전시용 등으로 차출된 결과로 보인다.

배열은 대체로 부수와 필획 순으로 되어 있는데, 동대자의 경우 대부분 ‘人’ 부수에 속한다. 銅小字는 20행 20개씩 배열되어 있다.

<표 2> 凸版印刷博物館 所藏 銅大字 배열 상황(수자는 활자의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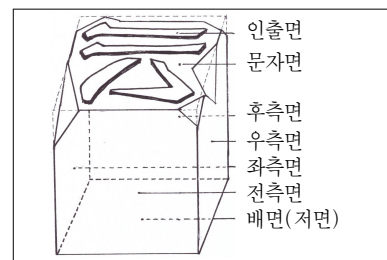
1번 서랍 (197개)	下,人77,入,仕2,仁4,仆,仇19,今11,介2,仍18,仇12,仕2,他15,伐6,付5,仙4,仞,仟4,代4,令7,仰.
2번 서랍 (191개)	仲10,任11,坊15,企,伊4,仮,伍39,伏3,伐2,休4,伯3,估2,伶似,伺,但4,位9,佐6,佑,何6,余5,佚,佛41,作5,修,佩,伴,佳,佼3,使8.
3번 서랍 (193개)	供2,使7,侈5,侍,侏,倅2,夫,全,供3,依5(이중 1개는 차출된 듯),倭3,侮2,修,佞6,佞,侵4,便3,係,倡,俗,俄,俊,俗3,俘,保7,俠,俾,信4,修4,倓,俯,仿,俯,俱2,倅4,倒,倉,倅2,借2,便,假5,倦,倩,倫3,倅,條,倓3,值2,倅,候,偃,倅3,健,假3,倓,偏,候,偏,偕,候,傀,倓,倓,傳5,傑,側3,偶,偷,倚,備10,傀,停,偏,供,備7,倓,條,僂2,催,倓2,值,傳5(紙片),備6,侮,倓,候2,備,偏,偃,倅4,備2,儕.
4번 서랍 (191개)	債,傷12,傾2,僅11,僉,像,僕8,僚4,儻,儻9,僞26,僭,僧11,僧5,債,僂,僂,價12,僻,儀4,億,假,倓,儻14,儻5(儻1 포함),儒17,脩,儒19,優7,儲2,儻,儻,入4,人,全2,命.
5번 서랍 (90개)	化8,合4,命6,全2,尗 <sup>13)</sup> 2,愈,攸5,會5,月2,畫19,秀,祗,租,秩,秭,稜,稠,穆,矜,脩12,禽3,臨,舍,覈,債9.

##### 3.1.2 活字의 胴體

활자 동체의 부분별 명칭은 <도 1>로 가름한다.

(1) 銅大字(<도 2> 참조)

1) 동체의 크기: 대체로 종12×횡16×고18mm 정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자가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人” 활자의 경우는 형태가 방정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표본으로 각 부분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동체 크기는 종12.1×횡16.4×고18.0mm, 문자면은



<도 1> 활자 동체의 부분별 명칭

13) 尗의 별체, 爾.

종12.1×횡16.4mm, 문자의 크기는 종9.7×횡13.0mm (扁體), 배면은 종11.9×횡15.8mm(배면의 역V자형 凹槽는 종 방향, 높이=깊이는 2.2~2.3mm), 전측면은 종16.0mm×고(좌측)16.8, (우측)17.0, 좌측면은 종11.9×고17.3mm, 후측면은 종16.2×고(좌측)16.9, (우측)17.2mm, 우측면은 종12.0×고17.0mm이다.

2) 문자면: (字模의) 필획을 조각하고 문자의 사방 가장자리를 평평히 다듬지 않고 사선으로 2.0~4.5mm 정도 깊이 깎아내린 경우가 많다. 이는 필획을 만들기 위한 조각이 아니므로 “3.1.3 (1) 1) 산의 각도, 2) 산의 깊이”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이하 같다.

3) 문자: 활자 동체의 문자면에 가득 차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배면: 역V자 형 凹槽의 높이가 낮은 것, 凹槽 양옆 다리가 약간 더 넓은 것 등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 凹槽는 그 높이가 낮은 것으로 보아 금속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판의 편리를 위한 기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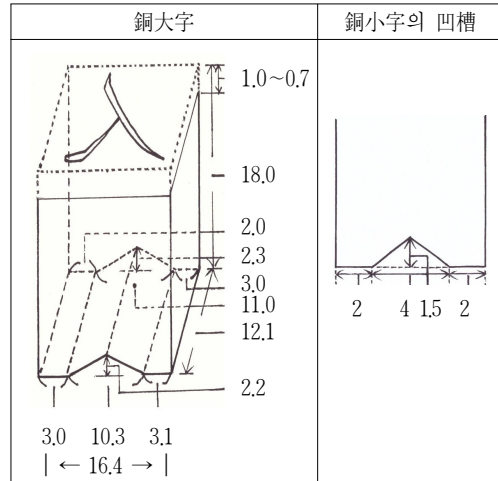
5) 표면 상태: 주조 후 손질된 상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할지라도 문자면을 포함한 곳곳에 주조 시의 결함이 남아있는데, 그 형태가 동글동글하게 패여 있다. 금속 주입 시 주형의 문자면 부분이 부서진 결과로 나타난 문자면 상의 너털이(문자면 이외의 너털이는 손질하여 없다.)와 부서진 가루가 주형 내에 남아서 금속이 주입되지 못한 결과인 홈이 모두 보인다. 100배 현미경으로 관찰했으나, 너털이를 수정한 흔적인 빗금만 확인될 뿐이다. 더 높거나 낮은 배율로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6) 금속 성분: 활자에 따라서 붉은 빛깔이 진하나, 순동은 아닌 듯하다. 순동에 가까운 95% 이상의 붉은 활자와 황동에 가까운 80% 색깔의 활자가 섞여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황동보다는 붉은 기운이 많다.

(2) 銅小字

1) 동체의 크기: 대체로 종12×횡8×고18mm 정도이다. 대부분의 활자가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雨” 활자의 경우, 문자면은 종12.1×횡8.2mm, 문자의 크기는 종8.0×횡5.3mm(長體), 배면은 종12.1×횡8.2mm(평평하거나, 역V자형 凹槽는 종 방향, 높이는 1.5mm)(<도 2> 참조), 전측면은 고17.8×횡8.2mm, 좌측면은 고17.8×종12.1mm, 후측면은 고17.3×횡8.2mm, 우측면은 고17.3×종12.1mm이다.

2) 문자면: 문자의 사방 가장자리를 2.0~3.0mm 정도 사선으로 깊이 깎아내렸다. 불순물이나 너털이는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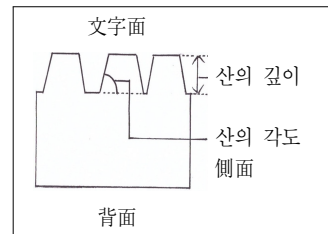


<도 2> 駿河版 銅活字의 동체(mm)

- 3) 문자: 문자면에 가득 차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중앙에 앉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 4) 배면: 凹槽를 字模에서 만들었을 것이나, 주조 시 주형의 파손으로 반쯤 메워진 것이 있다.
- 5) 표면 상태: 주조 시의 결함은 대자와 비슷하지만, 많지는 않다. 비교적 방정한 6면체로 다듬어져 있다.
- 6) 금속 성분: 붉은 정도가 약한 황동색갈의 경우도 있고, 순동에 가깝게 진한 색깔도 보인다. 대체로 대자보다는 약간 더 붉다.

### 3.1.3 文字의 筆劃

‘산’이란 필획 이외의 여백을 조각해 낸 결과 오뎅한 필획의 형상을 지칭한다. ‘산의 각도’란 문자의 필획을 만들기 위하여 조각한 필획 측면의 기울기를 말한다. ‘산의 깊이’란 필획과 필획 사이의 인출면에서 각저부까지의 깊이를 말한다(<도 3> 참조). 따라서 문자 사방의 가장자리를 사선으로 깊이 깎아내린 경우는 필획을 만들기 위한 조각이 아니므로 산의 각도나 깊이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하 같다. 산의 각도와 깊이는 활자의 사용 빈도가 많아짐에 따른 자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산의 깊이는 활자의 수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도 3> 活字의 斷面圖

- (1) 銅大字
  - 1) 산의 각도: 약 50~80° 정도로 대체로 가파르지 않다.
  - 2) 산의 깊이: 대체로 0.7~1.0mm 정도이다. “任” 활자의 경우 역시 대체로 1mm 미만으로 얇다.
  - 3) 자양의 일치 여부: 자적은 “人” 활자의 경우, 확인한 40개(실물은 77개)의 자양이 제법 큰 차이가 난다. 주조 시의 실수 흔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활자 자양의 특징과 인본상의 특징이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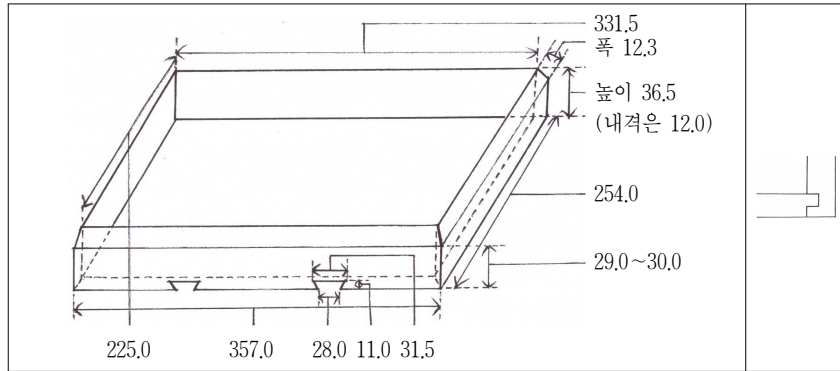
#### (2) 銅小字

- 1) 산의 각도: 70~80° 정도로 대자보다는 가파르다. 자면의 폭이 좁은 까닭으로 보인다.
- 2) 산의 깊이: 0.2~0.3mm 정도로 아주 얇다.
- 3) 자양의 일치 여부: 字跡이 대자보다는 비슷한 자양이 많이 보인다.

### 3.1.4 組版用 附屬品

#### (1) 印版 광곽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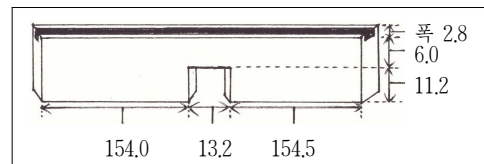
이는 木製로 광곽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도 4> 참조).



<도 4> 인판 광곽 틀(mm)과 꼭지점의 구조

(2) 광곽용 邊欄材

상하 변란재는 장322.0×고(=활자 높이)17.2×폭(=광곽 두께)2.8mm이다. 중간 아래 부분에 판심재를 조립할 수 있도록 홈이 파여져 있다. 이 홈의 크기는 고11.2×폭13.2mm이다(<도 5> 참조). 좌우 변란재는 장214.5×고17.0×폭3mm이다. 광곽 틀(내변)보다 광곽재의 높이는 5mm 정도 높고, 상하 변란재의 길이는 10.2mm 정도 짧고, 좌우 변란재의 길이는 9.3mm 정도 짧다.



<도 5> 상하 변란재(mm)

(3) 界線材

장207×고(=활자 높이)16.7×底面 폭2.8mm이다. 길이가 좌우 변란재보다 7.5mm 짧다. 인출면(저면의 반대측 상단)은 뽕족하게 선으로 깎았다(<도 8> 참조).

3.2 東京大學 總合圖書館 所藏

東京大學 總合圖書館은 駿河版 동활자와 조판용 부속품을 소장하고 있지만,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청구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서목록 등의 방법으로는 이를 검색할 수 없다. 심지어 해당 열람실의 일부 사서조차도 모르고 있다. 필자는 인적 정보를 통하여 소장 사실을 알게 된 후, 담당 사서에게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었다.

3.2.1 活字의 保管 및 排列 狀態

활자 및 조판용 부속품이 보호용 木製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다. 활자의 배열은 대체로 부수와



<표 4> 東京大學 所藏 駿河版 活字의 字跡(가나다순)<sup>15)</sup>

銅 大字	假	價	介	健	儉	傾
	估	供	傀	佼	仇	仇
	具	俱	僅	今	儻	倭
	袒	倓	代	倒	令	僚
	倫	儻	命	侮	侔	仿
	伐	僻	保	伏	僕	付
	傳	佛	備	俾	社	似
	使	舍	傷	西	仙	所
	備	俗	修	萃	僧	僧
	侍	信	什	餓	仰	億
	偃	余	伍	傲	僇	優
	位	僞	儒	攸	依	倚

15) 木大字의 “第·執·簽·篇”을 비롯한 일부 문자와 木小字의 일부 문자는 인적 정보로부터 입수한 자적의 일부 필획이 중복되거나 완전히 찍히지 않아서 불완전한 경우가 있다.

銅 大字	儀	介	伊	人	仁	伋
	任	債	仍	作	仗	儲
	佐	俊	仲	僭	倉	倡
	仵	側	侈	值	浸	他
	偷	便	偏	何	合	覈
	倖	化	畫	畫	隍	候
	休	侯	僭			

銅 小字	可	呵	各	渴	江	概	渠	汧	決	涇	溪
	古	哭	汨	渌	灌	卦	口	嘔	求	溝	淵
	潰	沂	淇	吉	溺	湍	擔	淡	潭	澹	曾
	渡	滔	洮	塵	洛	洛	濫	浪	沓	泠	潞
	漉	漏	汨	樓	流	膠	淪	杏	摩	萬	汚

銅 小字	酒	鳴	沒	潛	泊	伴	渤	法	否	浮	俯
	汾	啤	韜	濱	冰	史	巳	沙	湘	潛	泄
	涉	洒	召	凍	水	洙	苴	脣	承	深	潘
	掖	攘	洋	潑	漁	抑	焉	汝	公	淵	涅
	染	永	竊	汙	洿	溫	汪	拗	撓	右	沅
	源	渭	脩	油	潤	汙	漪	以	而	咽	湮
	溢	咨	自	漿	漳	抵	滁	占	淨	濟	留
	瓜	漉	酒	柱	潛	知	叱	登	嗟	滄	淒
	蕪	陽	泉	淺	洲	菖	沾	滌	滯	噫	澀
	摧	推	湫	沖	治	治	滄	溜	漆	浸	沉
	沱	濁	濯	涿	湯	汰	澤	波	吠	拊	浦
	品	河	漢	咳	海	醜	浹	洞	榮	呼	湖
	互	濤	混	渾	臥	洪	鴻	滑	隍	廣	禮
	淮	渚	交	喚	澗	洽	喜	噫	吉		

木 大字	歌	簡	胃	啓	考	籀
	果	冠	觀	歐	簞	答
	篤	豆	等	蘿	籠	苜
	笠	報	報	馥	馥	北
	辭	算	筭	釋	巢	巢
	笑	笑	筍	識	如	輿
	響	蓉	幽	笮	簪	緒
	薯	節	第	第	第	第
	檝	執	執	執	執	纂
	簽	梢	筓	就	妬	篇
木 大字	篇	篇	豐	篋	幸	幸
	虛	篋	笏	朽		

木 小字	改	敬	耕	攷	故	教	事	旗	畿	當	數
	文	文	文	方	龍	善	所	所	惡	愛	數
	於	宴	宴	存	慮	二	攷	攷	反	智	斷
	斬	憲	酷	荒							

### 3.2.2 活字的 胴體

#### (1) 銅大字(<도 6> 참조)

1) 동체의 크기: 형태는 대체로 갖추고 있으나, 모든 활자의 모든 부분에 약간의 오차가 있다. “人” 활자는 종12.3×횡16.3×고17.9mm, 문자의 크기는 종9.6×횡12.5mm(扁體)이다. “介” 활자는 종12.3×횡16.3×고17.8mm, 문자의 크기는 종10.9×횡14.8mm(扁體)이다.

2) 문자면: 문자의 사방 가장자리를 3.9~6.1mm 정도 사선으로 깊이 깎아내린 경우가 많다.

3) 배면: 평평한 경우도 있고, 凹槽의 형태가 역V자 형이나 사다리꼴 형태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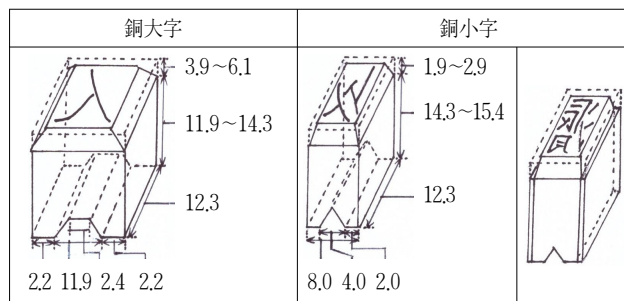
4) 표면 상태: 고르게 손질한 부분도 있고, 주조상의 실수로 문자면 이외의 부분이 성형이 안 되어 손질할 수 없는 상태 그대로의 것도 있다.

5) 금속 성분: 순동은 아니며, 황동이긴 하나 구리의 비율이 높아서 붉은색을 띠고 있다. 표면의 붉은 정도가 달라서 합금 비율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銅小字(<도 6> 참조)

1) 동체의 크기: “以” 활자는 종 12.4×횡8.0×고17.1mm(長體)이다. 간혹 크기가 다소 작을 경우, 해당 부분에 순동판을 오려서 납땀한 경우가 있다. “濶” 활자는 좌우 측면에 0.6mm 두께의 순동판을 납땀하여 규격을 맞췄다.

2) 문자면: 문자의 사방 가장자리를



<도 6> 銅大字와 銅小字의 凹槽(mm) 및 납땀 개념도

1.9~2.9mm 정도 사선으로 깊이 깎아내렸다.

3) 배면: 凹槽의 형태가 역V자 형이다.

(3) 木大字

1) 동체의 크기: “冠” 활자는 종11.9×횡20.3×고20.0mm이다.

2) 문자면: 문자의 사방 가장자리를 80~89°로, 2.1~5.2mm 정도 사선으로 깊이 깎아내렸다.

3) 배면: 평평하다.

(4) 木小字

1) 동체의 크기: “二” 활자는 종9.0×횡8.2×고19.0mm이다.

2) 문자면: 문자의 사방 가장자리를 2.1~3.9mm 정도 사선으로 깊이 깎아내렸다.

3) 배면: 평평하다.

### 3.2.3 文字의 筆劃

(1) 銅大字

1) 산의 각도: 완만하여 30~88° 정도이다.

2) 산의 깊이: 0.9~1.0mm 정도이다.

(2) 木大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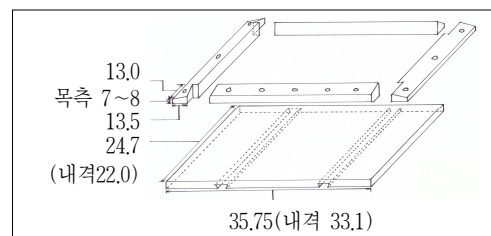
1) 산의 각도: 완만하여 40~80° 정도이다.

2) 산의 깊이: 0.3mm 정도이다.

### 3.2.4 組版用 附屬品

(1) 印版 광곽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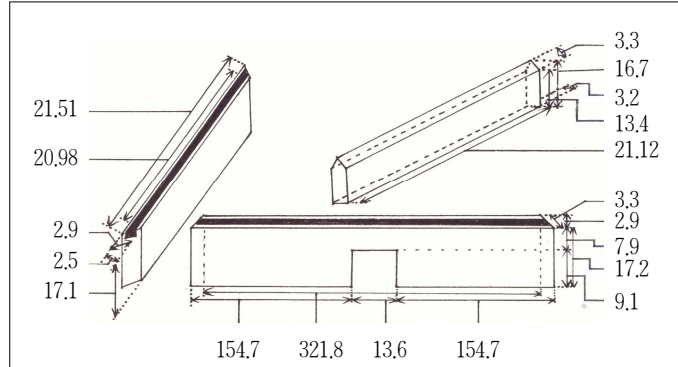
木製 1면이 있다. 인판 받침이 될 바닥에는 아래 면 2곳에 세로로 받침을 끼울 수 있는 홈이 있고, 그 홈에 맞게 가공된 각재가 결합되어 있다(<도 7> 참조). 광곽 틀의 조립 구조는 凸版印刷博物館의 경우와 다르다.



<도 7> 인판 광곽 틀(mm)

(2) 광곽용 邊欄材

銅製 광곽재는 四周雙邊이다. 양끝(꼭지점)을 45° 사선으로 처리하였다. 상하 변란재에는 중간 아래 부분에 관심재를 조립할 수 있도록 홈이 파여져 있다(<도 8> 참조).



<도 8> 四邊 광곽재와 계선재(mm)

(3) 界線材

장207.6×고(활자 높이)16.7× 底面 폭3.2mm이다. 길이가 좌우 변란재보다 2.2mm 정도 짧다. 인출면(저면의 반대측 상단)은 뾰족하게 선으로 깎았다(<도 8> 참조).

## 4. 伏見版 實物 古活字의 特徵

### 4.1 円光寺 所藏

#### 4.1.1 活字의 保管 및 배열 狀態

円光寺 경내 별도의 누각에 보존되어 있다. 보관 업무 담당자는 없고, 주지 스님이 관리하는 듯하였다. 円光寺 측의 관리가 엄격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열람을 허락하여 조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특징을 달리하는 경우는 표본을 요청하여 조사할 수 있었다. 조사 시간 내내 조사자의 모든 행동을 묵도하고 있어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의 신중함을 체험할 수 있었다.

관계 기관에 의한 활자 실물 조사가 끝나고<sup>16)</sup> 깨끗이 정리되었지만, 보관 용기는 원래의 것으로 보이는 활자 상자를 사용하고 있다. 상자 크기는 균일하지 않지만, 대체로 내격 중281.0(외격은 +7.5mm)×횡436.0(+7.1)×고29.0(+2.1)mm이다.

배열은 대체로 부수와 필획 순으로 되어 있는데, 대자의 경우 22~26행 19~23개씩, 小字는 47~52행 19~23개씩, 片假名 활자는 23행 33개씩 배열되어 있다.

16) 京都教育委員會編(1991), 3.

#### 4.1.2 活字의 胴體

本文用 大字 3종, 소자 2종, 假名 활자, 특수 활자 4종, 별치 활자, 그리고 소형 부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활자들이 많이 사용한 듯, 표면 전체가 묵즙으로 범벅이 되다시피 도포되어 있어서 분석이 쉽지 않았다.

##### (1) 本文用 大字 1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 활자이다.

1) 동체의 크기: “喻” 활자의 경우, 종12.0×횡16.2×고21.0mm, 문자 크기는 종9.2×횡13.5mm이다. “宣” 활자는 종12.0×횡16.3×고21.0mm, 문자 크기는 종9.3×횡11.2mm이다. 문자가 문자면에 가득 차지 않았다. 대체로 좌우 여백이 더 크다.

2) 동체의 형태: 방정한 육면체이다. 문자면은 문자의 사방 가장자리 중, 좌상귀 부분은 완만하고, 우하귀는 거의 수직으로 깎아 내린 것이 대체로의 현상이다. 이는 활자를 돌려가면서 조각한 것이 아니라, 활자 동체를 거의 고정시켜 놓고 한 방향 또는 두 방향에서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喻” 활자의 좌상귀는 70°, 우하귀는 90~92° 정도까지도 보인다. “宣” 활자는 60~80°, 하변은 89° 정도이다. 깎아내린 깊이는 “喻” 활자는 21.0-16.0=5mm, “浮”는 20.0-13.7=6.3mm, “宣”은 21.0-15.8=5.3mm, “捨” 역시 21.0-16.5=4.5mm 정도로 매우 깊다. 배면은 평평하다.

3) 표면 상태: 3번 상자의 제3행 제12자의 “園”에는 주목이 묻어있다.

##### (2) 本文用 大字 2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활자이다. 3번 상자의 좌측 7행에 배열된 활자 150개(6행×23개+7행 12개)는 우측의 사용한 적이 있는 활자와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동체의 크기: “高” 활자는 12.0×16.2×19.7mm, “邁” 활자는 11.9×16.3×19.2mm이다.

2) 동체의 형태: 방정한 육면체이다. “高” 활자의 필획 가장자리 좌상 부분은 80° 정도지만, 우상 부분은 89~90°의 거의 수직이며, 깊이는 19.7-18.1~18.6=1.1~1.6mm 정도로 아주 얇다.

3) 표면 상태: 활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듯, 문자면 부분은 먹이 묻어 있지만, 아래 부분은 목재가 그대로 노출되어 색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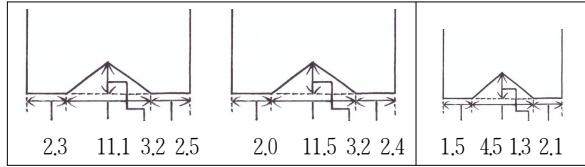
4) 재질은 대추나무보다 붉어서 산벚나무로 보인다.

##### (3) 本文用 大字 3

특징이 다른 활자군으로, 묵즙으로 범벅되어 있다. 伏見版으로는 보이거나 크기와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1) 동체의 크기: “叨” 활자의 경우는 12.0×16.2×17.2mm, 문자는 6.7×8.9mm이다. “告”는

12.0×16.3×17.3mm. 문자 사방의 여백이 큰 편이다. 활자의 높이가 本文用 大字 1, 2보다 낮다.



<도 9> 本文用 大字 3 “叨”의 전측면과 후측면 凹槽 및 小字 2 “櫝”의 전측면 凹槽(mm)

2) 동체의 형태: 대체로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각 부분별 크기가 다양하게 오차를 보인다. “叨”의 문자 가장자리는 대체

로 17.2-12.0=5.2mm 정도로 깊게 깎았고, 배면 凹槽는 역V자 형으로, 높이는 17.2-14.0=3.2mm이다 (<도 9> 참조).

예외적인 활자가 있다. 높이는 배면이 역V자 형인 활자와 같으면서 배면만 평평한 활자도 있다. “髡”은 11.3×16.0×19.0mm로, 부정형에 가깝다.

(4) 小字 1

1) 동체의 크기: “大” 활자는 12.0×8.2×20.0mm이다. 문자 크기는 7.1×7.0mm로, 상하 여백이 좌우보다 크다.

2) 동체의 형태: 방정한 육면체이다. “大”의 문자 가장자리의 깎아내린 깊이는 20.0-15.6=4.4mm 정도이다. 배면은 평평하다.

(5) 小字 2:

1) 동체의 크기: “櫝” 활자는 12.0×8.1×17.4mm이다. 활자의 높이가 小字 1보다 낮고, 本文用 大字 3과 비슷하다.

2) 동체의 형태: “櫝”의 배면 凹槽는 역V자 형으로, 높이는 17.2-14.0=3.2mm이다(<도 9> 참조).

(6) 假名 活字

1) 동체의 크기: 8.0×19.8×20.0mm로, 片假名 문자이므로 縱의 길이가 작다.

2) 동체의 형태: 방정한 육면체이다. “ヤ” 활자의 문자 사방 가장자리를 80~90°로, 20.0-16.9=3.1mm 정도 사선으로 깎아내렸다. “ソ”의 깎아내린 깊이는 19.9-17.1=2.8mm, “カ”는 20.0-13.2=6.8mm, “戈”는 20.0-15.9=4.1mm 정도이다. 배면은 평평하다.

3) 재질: 붉은 빛깔의 산벚나무로 보인다.

(7) 特殊 活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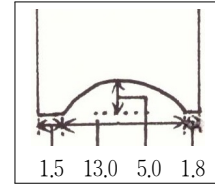
1) 연각 활자·음각 활자·어미 활자·기호 활자 등이 있다.

2) 동체의 형태: 음각 활자는 본문용 대자 1의 배면에 조각하였다. 소자의 배면은 평평하다.

(8) 別置 活字

1) 동체의 크기: “愷” 활자는 11.9×16.3×17.2mm이다. 문자 크기는 11.3×11.0mm로, 좌우 여백이 크다. 이런 형태는 2개가 있다.

2) 동체의 형태: 조각한 활자의 문자 부분만 7mm 높이 정도로 절단한 활자가 3개 있다. “愷”의 문자 가장자리는 17.2-14.0=3.2mm 정도로 깎아내렸다. 배면의 凹槽가 반원통형이다. 그 높이가 5mm로 역V자 형보다 높다(<도 10> 참조).



<도 10> 별치 활자 “愷”의 凹槽(mm)

4.1.3 文字의 筆劃

(1) 本文用 大字 1

1) 산의 각도: “噓” 활자의 경우는 80~85° 정도이다. “宣”은 85° 이상이다.

2) 산의 깊이: “噓” 활자는 1mm 정도이다. 필획이 조밀한 경우는 각도가 90°에 가까우면서 깊이는 0.3mm 정도로 얇은 경우도 있다. “宣”은 묵즙으로 도포되어 정확하지 않으나, 0.5mm 이내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浮”의 필획 사이는 20.0-17.3=2.7mm로, 다른 활자보다는 깊어서 필획이 우뚝 솟아 오래 사용해도 자형 유지가 가능한 형태이다.

3) 자적: 활자가 동일한 문자끼리 나란히 하고 있지 않아서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자양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4) 목리 방향: 가로로 나있다.

(2) 本文用 大字 2

1) 산의 각도: 대체로 80~85° 정도이다.

2) 산의 깊이: “高” 활자는 0.7mm 정도로 아주 얇다. 필획의 굵기와 크기가 本文用 大字 1과 비슷하나, 조각술이 다르다. 이 점에서 본문용 대자 1과 다른 시기에 조성한 활자로 보인다.

3) 목리 방향: 가로로 나있다.

(3) 本文用 大字 3

1) 산의 각도: “叨” 활자의 ‘口’ 안쪽 등 필획이 있는 부분은 85~90°에 가깝다.

2) 산의 깊이: “叨”는 0.8~1.1mm로, 평균 1mm 정도를 보이고 있다.

3) 자양의 일치 여부: 자적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문용 대자와 동일한 서체이다. 특징도 대동소이하다.

4) 목리 방향: 가로로 나있다.

(4) 小字 1

- 1) 산의 각도: 대자보다 필획이 조밀하여 각도가 가파른 편이다.
- 2) 산의 깊이: “大”의 필획이 성긴 곳은  $20.0-17.9=2.1\text{mm}$  정도, 조밀한 곳은 1mm 이내이다.

(5) 小字 2

- 1) 산의 각도: 대자보다 필획이 조밀하여 각도가 가파른 편이다.
- 2) 산의 깊이: 대동소이하지만, 대체로 伏見版 목활자나 기타 활자보다 깊은 편이다.

(6) 假名 활자

- 1) 산의 각도: “ヤ” 활자는  $90^\circ$ 에 가깝다. “ソ”는  $80^\circ$  정도로 완만하다.
- 2) 산의 깊이: 필획이 조밀하지 않아서 여타 활자보다 깊은 편이다. “戈”는  $20.0-18.0=2.0\text{mm}$ 로, 대체로 1~2mm 정도이다.

(7) 특수 활자

- 1) 연각 활자: 본문용 대자 2의 산이 얇은 것과 같다.
- 2) 음각 활자: 산의 각도는  $90^\circ$ 에 가깝고, 깊이는 0.5mm 이내이다.

(8) 별치 활자

산의 각도는  $80\sim 85^\circ$ 로 본문용 대자 1과 대동소이하다.

#### 4.1.4 組版用 부속품

(1) 광곽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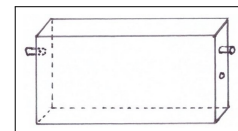
長 $276.5\times$ 幅 $6.0\times$ 高 $18.0\text{mm}$ 이다. 재질은 소나무나 피나무로 보인다.

(2) 계선材

長 $272.0\times$ 幅 $5.1\times$ 高 $8.6\text{mm}$ 이다. 높이가 낮은 점으로 보아 인출 목적이 아닌 활자 배열용 계선재로 보인다. 목즙인지 칠인지 모를 반짝거리는 염료가 묻은 면이 두 면, 나머지 두 면은 묻지 않고 깨끗하다. 木製에 竹製가 섞여있다.

(3) 소형 부속

長 $42.8\times$ 幅 $4.0\times$ 高 $16.3\text{mm}$ 이다. 직경 $1.2\times$ 長 $18\text{mm}$ 의 木釘이 양 측면에 하나씩 박혀있고, 한 면에는 또 하나의 구멍이 있다. 먹은 상부 한 면만 약간 묻어있다(<도 11> 참조).



<도 11> 소형 부속

## 4.2 京都府立總合資料館 所藏

### 4.2.1 활자의 보관 상태

伏見版 木活字 실물의 청구번호는 '24'이다. 활자 보관 용기에 보존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량은 912개이다. 재질은 모두 벚나무로 보인다.

### 4.2.2 활자의 동체

#### (1) 本文用 大字 1

円光寺 소장 本文用 大字 1과 같은 규격의 활자이다. 117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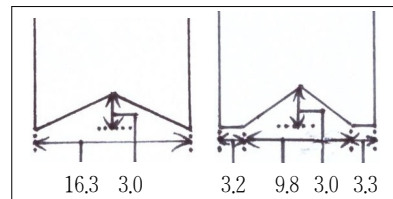
1) 동체의 크기: “閉” 활자는 종12.3×횡16.9×고20.1mm, 문자 크기는 종10.8×횡10.0mm이다. “謹”은 종12.2×횡16.8×고19.1mm, 문자 크기는 종10.1×횡14.0mm이다.

2) 동체의 형태: 방정한 육면체이다. 문자면 문자의 사방 가장자리 여백을 75~90°로 4.1~7.3mm(“閉”), 75~90°로 2.1~10.2mm(“謹”) 정도 매우 깊게 깎아내렸다. 높이가 높으면서, 배면은 모두 평평하다.

#### (2) 本文用 大字 2

円光寺 소장 本文用 大字 3과 같이 높이가 낮은 활자이다. 배면에 역V자 형의 凹槽가 있는 23개와 평평한 3개가 있다.

1) 동체의 크기: “酉” 활자는 종11.8×횡16.3×고17.6mm, 문자 크기는 종10.8×횡10.9mm이다. “醴”는 종12.0×횡16.3×고17.8mm, 문자 크기는 종10.1×횡11.9mm이다.



<도 12> 本文用 大字 2  
“酉”와 “醴”의 凹槽(mm)

2) 동체의 형태: 방정한 육면체이다. 문자면 문자의 사방 가장자리 여백을 70~85°로 4.8~5.4mm(“酉”), 75~88°로

6.6~7.8mm(“醴”) 정도 깊게 깎아내렸다. 배면의 凹槽는 하단의 역V자 입구가 배면의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酉”)와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경우(“醴”)가 있다. 그 높이는 3.0mm이다(<도 12> 참조).

#### (3) 本文用 大字 3

보각한 것으로 보이는 활자로 2개가 있다.

1) 동체의 크기: “九” 활자는 종12.7×횡16.8×고19.6mm, 문자 크기는 종8.3×횡11.7mm이다.

2) 동체의 형태: 방정한 육면체이다. 문자면 문자의 사방 가장자리 여백을 60~80°로 깎아내렸다. 배면은 평평하다.

(4) 小字

일반적인 소형 활자인데, 특징적인 것으로 양면 조각 2개, 횡폭이 특히 좁거나 넓은 경우 각 1개씩, 산의 깊이가 특히 얇아서 보각으로 보이는 8개가 있다. 모두 767개이다.

1) 동체의 크기: “陌” 활자는 종12.0×횡8.5×고19.9mm, 문자 크기는 종7.8×횡7.0mm이다. “廉”은 종12.2×횡8.1×고20.0mm, 문자 크기는 종8.9×횡7.9mm이다. “隱”은 종12.0×횡8.1×고20.1mm, 문자 크기는 종8.7×횡6.1mm이다.

횡 폭이 작은 “月”은 12.0×횡6.0×고20.1mm, 문자 크기는 종7.1×횡4.0mm이고, 횡 폭이 큰 경우는 9.4mm이다.

“仔”는 종12.1×횡8.1×고20.1mm, 문자 크기는 종8.1×횡8.0mm이다. 문자 이외의 여백을 깎아내는 깊이가 얇아서 보각으로 보인다.

2) 동체의 형태: 방정한 육면체이다. 문자면 문자의 사방 가장자리 여백을 50~90°로 4.3~7.7mm(“陌”), 70~85°로 4.5~7.9mm(“廉”), 80~90°로 2.0~8.7mm(“隱”), 75~90°로 3.8~8.1mm(“月”), 80~88°로 3.5~4.0mm(“仔”) 정도 매우 깊게 깎아내렸다. 배면은 평평하다.

#### 4.2.3 문자의 필획

(1) 大字 1

- 1) 산의 각도: “閉” 활자는 60~90°, “謹”은 85~90° 정도이다.
- 2) 산의 깊이: “閉” 활자는 0.2~1.0mm, “謹”은 0.2~0.5mm 정도이다.

(2) 大字 2

- 1) 산의 각도: “酉” 활자는 거의 90°, “醜”는 80~90° 정도이다.
- 2) 산의 깊이: “酉” 활자는 0.3~0.5mm, “醜”는 0.3~0.8mm 정도이다.

(3) 大字 3

- 1) 산의 각도: “九” 활자는 88~90° 정도이다.
- 2) 산의 깊이: “九” 활자는 0.5~0.8mm 정도이다.

(4) 小字

1) 산의 각도: “陌” 활자는 80~90°, “廉”은 80~90°, “隱”은 85~90°, “月”은 80~90°, “仔”는 85~90° 정도이다.

2) 산의 깊이: “陌” 활자는 0.4~1.2mm, “廉”은 0.2~0.5mm, “隱”은 0.2~0.3mm, “月”은 0.2~0.8mm, “仔”는 0.1~0.5mm 정도이다.

## 5. 宗存版 實物 古活字의 特徵

### 5.1 活字의 保管 및 배열 狀態

延曆寺 경내의 수장고에 보존되어 있다. 보관 업무 담당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관계 기관에 의한 활자 실물 조사가 끝나고<sup>17)</sup> 새로 제작한 보관 용기에 활자와 조판용 부속품 및 충손에 의한 파편까지 성격별로 분류되어 있다. 보관 용기는 피나무처럼 약간 무른 나무로 상자를 제작하였다. 상자 크기는 내격 종323.0(외격은 +2.38)×582.0(+1.84)×고22.5(+6.0)mm이다.

배열은 본문용 대자의 경우, 40행×25개씩, 소자Ⅱ형의 경우 79행×25개씩 배열하되, 대체로 부수와 필획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충손 활자는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다.

### 5.2 活字의 胴體

本文用 大字(I 형 포함), 小字(Ⅱ·Ⅲ·Ⅳ형), 연각 활자, 기호 활자, 부정형 활자, 그리고 조판용 부속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本文用 大字

1) 동체의 크기: 양각으로 조각한 본문용 대자로 사용한 활자이다. “造” 활자의 경우는 종12.0×횡14.2×고18.9mm이다. 문자 크기는 종11.3×횡13.0mm로 문자면에 비하여 종은 거의 가득 차고, 횡은 제법 여백이 있다. “無” 활자는 많이 사용한 듯 마모되어 高18.0mm 정도까지 낮아졌다. 복원판을 보면 활자 횡+계선(폭 4.2~4.8mm)=활자의 高에 가깝다.

음각 활자인 “末”은 종12.1×횡14.2×고18.0mm(紙片으로 1.9mm 정도 돌았다.)이다. 문자의 크기는 다소 작아서 종11.0×횡12.1mm 정도이다.

I 형은 사용한 활자로 종의 길이만 본문용 대자보다 약 2mm 정도 작다. “護” 활자는 종10.2×횡14.0×고18.8mm이다. 문자 크기는 종10.0×횡13.0mm로 문자면에 비하여 종은 거의 가득 차고 있으나, 횡은 미세한 여백이 있다. I 형 활자의 특징은 일본의 목활자에서 보기 드물게 문자 필획이 동체의 문자면에 거의 가득 차 있는 점이다. “金”은 종7.9(동체는 10.1)×횡9.5(동체는 14.4)mm, “門”은 종9.2(동체는 10.0)×횡9.6(동체는 14.0)mm 정도이다.

2) 활자의 형태: 방정한 6면체이다. 문자면의 문자 사방 가장자리는 50~60°, 사용한 I 형 활자 “護”는 거의 40° 정도, 깎아내린 깊이는 5.3~7mm까지 매우 깊다. “三”은 5.7mm, 사용한 I 형 활자

17)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編,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圖版編)』(2000). ;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編,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本編)』(2000).

“護”는 18.9-15.7=3.2mm 정도이다. 배면은 모두 평평하다.<sup>18)</sup>

3) 표면 상태: 대패질한 표면을 100배율 현미경으로 보면, 손질한 금속 주조면처럼 흠이 불규칙적으로 패여 있다. 1mm<sup>2</sup>에 크고 작은 흠이 40개 정도. 간혹 파손되어 섬유질이 드러난 경우가 드물게 보인다. 미사용 활자 표면에서 동일한 방향의 빗금이 보인다. 대패질 흔적인 듯하다. 本文用 大字 이외의 활자도 대동소이하다.

4) 재질: 목재의 빛깔이 붉다. 보고서는 산벚나무라고 하고 있다. 미사용 활자의 색깔은 대추나무에 가깝거나 또는 더욱 붉다. 本文用 大字 이외의 활자도 대동소이하다.

(2) 본문용 소자

1) 동체의 크기: 규격의 차이에 따라 3종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II형 활자는 양각으로 조각한 본문용 소자로 횡의 길이가 대자의 절반 정도로 전형적인 소자이다. III형은 주로 숫자와 60갑자의 문자이다. IV형은 종과 횡의 길이가 대자보다 약간 작으면서 정사각형이다.

II형인 “第”는 종12.0~12.3×횡6.0~7.0×고18.3~18.6mm로 약간의 편차가 있다. III형인 “未”은 종8.0×횡5.0×고18.0mm이다. IV형인 “頭”는 종9.9×10.3×18.0mm이다.

2) 활자의 형태: 모두 방정한 6면체이다. II형의 문자 가장자리는 50° 정도, 깎아내린 깊이는 2.3~5.2mm 정도로 깊은 편이다. “尸”는 18.3-13.1=5.2mm, “事”는 18.2-15.5=2.7mm이다. III형 “未”는 18.0-15.2=2.8~1.2mm까지 얇다. IV형 “頭”는 18.0-14.0=4mm 또는 18.0-16.8=1.2mm 정도로 편차가 있다.

(3) 연각 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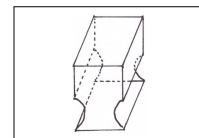
1) 동체의 크기: 상투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본문용 대자로 2자(“詔譯”), 3자(“經卷第” 2개), 6자(“般若波羅蜜多”), 7자(“三藏法師玄奘奉”) 등이 있다. 종의 길이는 연각 문자수에 따라서 다르다. 횡14.0×고18.2mm이다.

2) 활자의 형태: 모두 방정한 6면체이다. 표면에 깎인 상처 흔적이 간혹 있다. 밀랍 필요 없이 紙片으로 높이만 조절하여 조판할 수 있도록 형태가 갖추어져 있다. 문자의 가장자리를 “詔譯”는 18.2-15.8=2.4mm, “經卷第”는 18.3-15.0=3.3mm 정도 깎아내렸다.

(4) 기호 활자

1) 동체의 크기: “ㄱ·○·○·□·□(□의 중간 세로 선을 파내어 조성한 것)” 등의 활자이다. “□” 활자는 종12.0×횡14.0×고18.1mm이다.

2) 활자의 형태: 대부분 방정한 육면체이나, 예외적으로 좌우 측면 하반부를 움푹 파낸 경우가 있다(<도 13> 참조).



<도 13> 기호 활자의 예외적 형태

18) 일부 특수 활자에서 전측면 또는 간혹 후측면에 십자형 또는 |자형으로 폭 1.5mm, 깊이 0.5~1.5mm의 凹槽가 있다.

(5) 不定型 활자

1) 동체의 크기: 대자·소자·손상된 활자로 구분할 수 있다. 대자는 문자·숫자·기호 활자를 포함하고 있다. “一”은 종34.0×횡14.1×고18.4mm, “卍”는 종10.0~11.3×횡14.2×고18.2mm, “二”는 종7.5×횡14.2×고18.1mm이다. 종의 길이가 본문용 대자의 약 3배 또는 2/3인 점이 특징이다.

소자는 不定型 활자의 과반을 차지한다. “三”은 종9.0×횡7.3×고18.2mm, “十·九”는 종11.1×횡7.0×고18.3mm이다. 대체로 종의 길이는 편차가 있고, 횡은 대자의 절반 정도, 높이는 비슷하다.

손상된 활자는 필획 등에 상처가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功” 등은 미사용 활자로 여기에 분류되어 있다.

2) 활자의 형태: 육면체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다소 삐뚤게 재단하였다.

### 5.3 文字의 筆劃

(1) 本文用 大字

1) 산의 각도: 필획이 성긴 부분은 80° 정도, 조밀한 부분은 90° 이상까지도 보인다. 필획이 성긴 부분이라도 90°가 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문자를 조각할 때 동체를 돌려가며 조각하지 않고, 한쪽에 서 필획의 양측을 조각한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각도가 균일하지 않고 편차가 크다.

미사용 음각 활자 “經”은 80~85° 정도이다. 미사용 I형 활자도 대동소이하다.

사용한 I형 활자 “護”의 필획이 성긴 곳은 70~80°, 조밀한 곳은 90°에 가깝다.

2) 산의 깊이: 필획 사이는 폭에 따라 1~2.5mm 정도이다. 각도가 완만한 곳은 깊이가 0.5~1mm 미만으로 얇다.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편차가 크다.

미사용 음각 활자 “經”은 1mm 이내로 얇다. 대신 필획이 가늘다. 미사용 I형 활자도 대동소이하다.

사용한 I형 활자 “護”는 0.2mm 정도로 매우 얇은 곳도 있다.

3) 자적: 목활자이므로 자양이 다르긴 하나, 많은 사용으로 마모되어 조각 당시의 자양을 느낄 수 없다. 실물을 직관하여도 자양이 다소 차이가 난다.

(2) 본문용 소자:

1) 산의 각도: II형 활자의 필획이 성긴 곳은 80°, 조밀한 곳은 거의 90° 가까운 경우도 있다. III·IV형도 대동소이하다.

2) 산의 깊이: II형 활자는 깊이가 매우 얇아서 0.2~0.3mm 정도도 있다.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편차가 보인다. III·IV형도 대동소이하다.

3) 자적: 차이가 보이는데, 대자보다 편차가 크다.

(3) 연각 활자

산의 각도와 깊이: 본문용 대자와 대동소이하다.

(4) 기호 활자

- 1) 산의 각도: 필획이 많지 않은 까닭에 대부분 매우 낮아서 30° 정도부터, “□” 활자는 40°, “0”는 60°, “○”는 70° 정도이다.
- 2) 산의 깊이: 깊게 조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얇다.

(5) 不定型 활자

산의 각도와 깊이: 여타 활자와 대동소이하다.

#### 5.4 組版用 부속품

(1) 행간재와 자간재: 계선 위치에 높이를 낮추어 배열한 행간재는 폭4.2~4.5×고12.7~14.0mm 정도이다. 본문의 문자가 없는 공간에 충전하기 위한 자간재는 횡15.0×고15.0mm이다. 종은 공간의 길이에 따라 다르다.

(2) 께선재: 주로 科文류 판본 상부의 이음선 표시용이다. 길이는 다양하며 높이는 활자와 같다.

(3) 그림 판목: 활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림을 조각한 목판이다.

#### 6. 天海版 實物 古活字의 特徵

필자가 天海版 고활자의 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자를 방문하였을 때는 天海版 고활자의 조사·분류·보존 등을 위한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실물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부득이 차후에 보완하고자 한다.

#### 7. 高野版 實物 古活字의 特徵

高野版 木活字 실물은 3곳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東大寺 도서관에 4,345개, 高野山 西禪院에 3,234개, 天理圖書館에 7개씩이다. 이중 東大寺 도서관과 天理圖書館 소장 실물을 직접 조사하였다.

## 7.1 東大寺 圖書館 所藏

### 7.1.1 活字의 保管 및 배열 狀態

東大寺 경내에 소재한 도서관에 1함이 사찰 업무를 겸하는 사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보관 상자는 피나무로 보이는 목재로 제작하였다. 상자의 내격 크기는 종289.0(외격은 +25.5)×횡445.0(+42.5)×고 32.5mm이다. 보관 상자 내 활자 행 사이의 격판은 폭2×고15mm로, 양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상자 상하면 안쪽의 홈에 끼워 넣어 고정하였다.

배열 상태는 28행×22개씩, 일본어 발음순으로 동음 활자는 같은 위치에 나란히 정리되어 있는데, 50음도의 발음 1개에 1행의 활자를 배열하였다.<sup>19)</sup> 마치 표본집처럼 각 문자의 활자가 1~2개씩 있다. 충손으로 문자 식별이 불가능한 활자도 4~5개 있다.

### 7.1.2 활자의 동체

本文用 大字, 소자, 片假名 활자, 예외 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각 활자는 없다.

#### (1) 本文用 大字

1) 동체의 크기: “殮·哭” 활자는 종10.5×횡12.0×고17.0mm, 기타도 대체로 균일하다. “而·面·到·利” 등 문자는 종은 문자면의 95% 이상 가득함에 비하여, 횡은 90% 정도로 여백이 약간 더 있다. 대체로 90% 정도이다. 예외적으로 “中·斤·司” 등은 동체 횡12.0mm에 문자는 횡7.0mm이다.

2) 동체의 형태: 대부분 방정한 직육면체로 매끈하다. 이는 목재를 육면체로 먼저 가공한 후 조각한 결과로 보인다. 문자면의 문자 사방 가장자리는 거의 90°(“哭”), 깎아내린 깊이는 2.0~3.0mm이다. 배면은 모두 평평한데, 문자를 조각한 흔적이 있는 경우가 있다.

3) 표면 상태: 많이 사용하여 육면이 모두 묵즙으로 도포된 활자와 많이 사용하지 않은 듯 문자면 부분만 도포된 활자가 있다.

4) 재질: “檣” 활자의 붉은 색으로 미루어 대추나무 또는 뽕나무로 보인다.

#### (2) 本文用 小字

1) 동체의 크기: “檠, 辟” 활자는 종10.7×횡5.9×고17.0mm로, 기타도 대체로 균일하다. 문자의 크기는 사방의 여백이 5% 미만으로 가득한 편이다. “付·矣·并” 등은 대자 동체의 우측 절반에 조각하였다.

2) 동체의 형태: 방정한 직육면체다. 문자를 양면에 조각한 경우가 있다. “職”의 배면에 “軀”처럼,

19) 이는 현재의 배열 상태이다. 고향자본을 인출하던 당시의 배열 상태는 알 수 없다.

배면에 조각할 문자의 자양만 써넣고 조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片假名 활자

1) 동체의 크기: “ㄱ·ㅋ” 활자는 종7.2×횡12.0×고17.2mm로, 기타도 대체로 균일하다. 문자의 크기는 상하 95%이지만, 좌우는 70%로 여백이 많다.

2) 동체의 형태: 대체로 방정한 직육면체다.

(4) 예외 활자

1) 동체의 크기: 예외적으로 不定型 활자가 아주 드물게 있다. 대자인 “靖”은 종9.5×횡11.0×고18.8mm, “均”은 종10.0×횡13.2×고18.0mm, “興”은 종14.0×횡9.2×고16.3mm이다.

2) 동체의 형태: 대체로 방정한 직육면체다.

### 7.1.3 문자의 필획

(1) 本文用 大字

1) 산의 각도: “ㄷ” 활자는 60~85°로 비교적 가파르지 않은 편이다. 문자 필획이 성긴 곳의 60° 정도부터 드물게 “ㄷ·ㄷ”의 하단처럼 90° 이상도 보인다.

2) 산의 깊이: 대체로 1mm 이내이다. 필획이 조밀한 문자는 산의 각도도 가파르면서 깊이도 얇다. 성긴 문자는 가파르지 않으면서 깊이는 1.0~1.2mm로 얇다. 사용하여 마모된 것은 더 얇다.

3) 자적: 동일 문자의 자양은 비슷하기도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아직 필서체를 유지하고 있다. 자양이 匠體로 전환되는 초기의 특징을 가로 필획이 끝나는 부분에서 보이고 있다.

(2) 本文用 小字

산의 각도: 대체로 80~85° 정도로 가파르다. 여유 공간이 좁은 결과로 보인다.

(3) 片假名 활자

산의 각도: 40~90°로 균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가파르지 않다. 필획이 적어서 여유 공간이 많은 결과로 보인다.

## 7.2 天理圖書館 所藏

### 7.2.1 활자의 보관 상태

本文用 大字 7개가 여타 활자와 함께 보관되어 있다. 담당 사서는 東大寺 소장 목활자와 같은

활자라고 하였다.

## 7.2.2 활자의 동체

(1) 동체의 크기: “刺” 활자는 종10.8×횡12.3×고17.1mm, 문자 크기는 종10.0×횡9.3mm이다. 따라서 종의 여백은 0.8mm=7.4%, 횡은 3.0mm=24.39%이다. “劔”은 종10.3×횡12.2×고17.2mm이다.

(2) 동체의 형태: 방정한 육면체이다. 문자면의 문자 사방 가장자리는 거의 90°, 깎아내린 깊이는 17.2-15.9=1.3mm(“劔”) 정도이다. 배면은 평평하다.

## 7.2.3 문자의 필획

(1) 산의 각도: 거의 90°에 가까운데, 필획이 성긴 곳은 75~80° 정도도 있다.

(2) 산의 깊이: 0.2~0.5mm 정도로 얇다.

## 8. 現存 實物 近世活字의 特徵

天理圖書館에 근세 활자와 조판용 부속품이 소장되어 있어서 고활자의 부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 8.1 彦根藩 木活字

#### 8.1.1 大型 活字

(1) 동체의 크기: “灑·炮” 활자는 종10.1×횡13.5×고12.2mm이다. 문자 크기는 “灑”이 종9.0×횡9.2mm, “炮”가 종8.0×횡10.0mm이다. “烟”은 종10.3×횡14.0×고12.2mm, 문자 크기는 종8.0×횡10.7mm이다.

(2) 동체의 형태: 방정한 육면체이다. 문자의 가장자리를 12.2-10.5=1.7mm 정도 깎아내렸다. 배면에 片假名 “フ・ス” 등이 조각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3) 산의 각도: 필획이 성긴 부분은 완만하여 70~80°, 조밀한 부분은 85~90° 정도이다.

(4) 산의 깊이: 필획이 조밀한 부분은 0.5mm미만으로 보인다.

### 8.1.2 小型 活字

(1) 동체의 크기: “𪛗” 활자는 종10.1×횡6.5×고12.2mm, 문자의 크기는 종9.0×횡5.5mm이다. “𪛗” 활자는 종9.9×횡6.7×고12.0mm, 문자의 크기는 종6.9×횡6.2mm이다.

(2) 동체의 형태: 방정한 육면체이다. “𪛗”의 문자 가장자리는 12.2-11.3=0.9mm, “𪛗”은 12.0-11.0=1.0mm 정도 깎아내렸다. 배면에 문자가 정체자로 쓰여 있어서 식별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sup>20)</sup>

(3) 산의 각도: “𪛗”은 필획이 조밀하여 가파르다. “𪛗”의 필획이 성긴 부분은 80° 정도, 조밀한 부분은 85~90° 정도이다.

(4) 산의 깊이: “𪛗”은 0.3~0.5mm, “𪛗”은 0.3~0.4mm 정도이다.

### 8.1.3 조판용 부속품

(1) 계선재: 폭3.5×고12.0mm, 길이는 다양한데 대체로 210.0mm이다. 인출면은 선으로 깎았다.

(2) 행간재: 폭6.9×고10.9mm, 폭6.2×고10.9mm, 폭3.0×고8.0mm 등 일정하지 않다. 길이는 다양한데, 대체로 긴 것이 210.0mm로 계선재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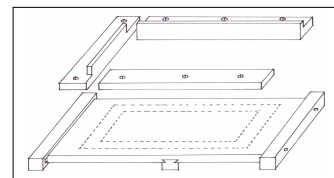
(3) 인판 틀 1면과 활자 상자 1개가 있다.

## 8.2 近世 木活字의 組版用 부속품

어느 활자판에 사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8.2.1 인판 틀 1(<도 14> 참조)

(1) 광곽재와 버팀목: 상변재와 좌변재는一體式, 하변재와 우변재는 조립식이다. 광곽재의 높이는 11.5mm, 버팀목(못질 부분)의 높이는 9.0mm, 폭은 18.0mm이다. 길이는 상하변재294.0×좌우변재 190.0(버팀목=225.0)mm이다. 각 변의 길이는 서적의 크기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다. 인판의 하변과 우변(판본의 좌변)은 행의 길이와 판면의 폭을 조절하기 위하여 하변은 버팀목만 고정되어



<도 14> 인판 틀 1

20) 정체자이므로 조각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 문자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보관 상자에서 활자의 문자면을 아래로, 배면을 위로 배열하여야 한다. 실제 이리했는지의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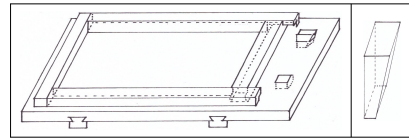
있고, 광곽재는 분리되어 있다. 우변재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이다.

(2) 인판 받침: 평평한 목판 좌우에 다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구리를 끼워서 못 또는 췌기로 고정하였다. 받침 중간 아래에 세로로 받침을 하나 추가하였다. 이 인판 받침 위에 광곽재를 고정하는데, 상하변재는 3개의 나사못을, 좌우변재는 2개의 나사못을 사용하였다.

(3) 목재의 재질: 붉은 빛으로 보아 뽕나무로 보인다.

### 8.2.2 인판 틀 2(<도 15> 참조)

(1) 상·하·좌변 광곽 틀은 고정, 우변(판본의 좌변) 광곽 틀은 상하단의 아래 부분을 상하변 광곽 틀의 아래 부분에 끼워 넣고 이동하면서 판면의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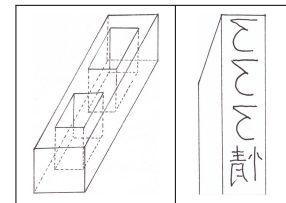
<도 15> 인판 틀 2와 췌기

(2) 우변 광곽 틀의 고정은 인판 받침 우측에 췌기를 박을

수 있는 구멍이 2개 있어서 조판 후 췌기를 지지대로 삼아 버팀목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조판 순서: 인판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되, 활자-계선재-활자-계선재...판심재...우변 광곽재-버팀목-췌기 순으로 배열하여 완성한다.

(4) 판심재: 종191.0×횡13.0×고15.5mm이다. 중간에 2개의 홈이 方形으로 파여 있어서 판심재·어미·권차·장차 등을 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종18.1×횡9.0mm와 종17.0×횡9.1mm이다(<도 16> 참조). 이는 비록 고활자판의 부속품은 아니지만, 고활자판의 기술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필자가 이미 여러 일본 고활자판 인쇄기술의 연구에서 추론한 판심의 특징을 증명하는 실증이라고 할 수 있다.



<도 16> 판심재와 목활자(연각 상태) 개념도

(5) 계선재: 폭은 1.3mm, 인출면은 선으로 깎았다.

(6) 목활자(연각 상태): 1행을 조각했으되, 동일한 문자가 반복되는 점에서 연각활자가 아니라, 아직 날개로 자르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산의 각도는 60~90°, 깊이는 1mm 이내다(<도 16> 참조).

## 9. 結論

이상 조사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 고활자는 7종이 11곳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즉 駿河版 銅活字와 伏見版·宗存版·天海版·高野版·心蓮院版·性海寺 所藏 등의 木活字다. 이들 활자는 동체의 크기

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혼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2) 각각이 보관용 상자에 정리되어 있다. 배열은 한자의 부수와 필획 순 또는 일본어 발음 순으로 되어 있다.

(3) 駿河版 銅活字의 금속 성분은 순동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황동보다는 구리(Cu)의 비율이 높은 합금이다. 목활자의 재질은 주로 벚나무를 사용하였다.

(4) 활자의 종류는 대자·소자·假名(일본 문자) 활자·연각 활자·음각 활자·기호 활자·특수 활자 등이 있다.

(5) 활자의 동체는 대부분 방정한 육면체이다. 문자면의 문자 사방 가장자리는 평평히 다듬지 않고 사선으로 1.1~10.2mm 정도로 깊이 깎아내렸다. 문자는 거의 대부분이 문자면에 가득 차지 않았다. 그 편차는 각각이었다.

(6) 활자 배면의 凹槽는 平平한 형태, 역V자형, 사다리꼴형, 드물게 반원통형 등이 있다. 그러나 凹槽의 높이가 균일하지 않고, 5.0mm 이내로 그다지 높지 않아서 조판의 편리를 위한 기능 정도로 보인다.

(7) 필획을 조각하기 위한 산의 각도는 30° 정도의 경우도 보일만큼 완만한 경우가 많다. 92°의 경우도 있기는 하다.

(8) 산의 깊이는 0.1~2.5mm로, 대체로의 평균은 1mm 정도로 매우 얇다.

(9) 광과재·계선재·관심재·행간재·괘선재 등 조판용 부속품은 판본을 통한 인쇄 기술 연구의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

## <참고문헌>

京都教育委員會編. 『円光寺所藏伏見版木活字關係歴史資料調査報告書』. 京都: 京都教育委員會, 1991.

渡邊守邦 등. 『寛永寺藏天海版木活字を中心とした出版文化財の調査・分類・保存に関する総合的研究』(科學研究費基盤研究(A)(1)平成10~13年度研究成果報告書). 東京: 實踐女子大學, 2002.

讀賣新聞. 1989년 5월 30일.

(日本)文化廳編. 『國寶・重要文化財總合目録: 美術工藝品編』. 東京: 第一法規出版(株), 1980.

印刷博物館學藝企劃室・凸版印刷株式會社エディトリアル研究室編. 『印刷博物館開館特別企劃展圖録: 江戸時代の印刷文化-家康は活字人間だった!!』. 東京: 印刷博物館, 2000.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編.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圖版編)』. 大津市: 滋賀縣教育委員, 2000.

-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編.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查報告書(本編)』. 大津市: 滋賀縣教育委員, 2000.
- 曹炯鎮. “日本 高野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72(2017. 12). 145-168.
- 曹炯鎮. “日本 伏見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59(2014. 9). 65-101.
- 曹炯鎮. “日本 宗存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70(2017. 6). 117-144.
- 曹炯鎮. “日本 駿河版 銅活字의 製作過程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4(2002. 12). 89-129.
- 曹炯鎮. “日本 駿河版 및 紀州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60(2014. 12). 71-107.
- 曹炯鎮. “日本 天海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76(2018. 12). 25-52.
- 曹炯鎮. “日本の 駿河版은 朝鮮의 活字인가?” 『書誌學研究』 26(2003. 12). 5-23.
- [重要文化財審議委員會]編. 『重要文化財議案說明書: 歷史資料の部』. 東京: [重要文化財審議委員會], 2000.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Hyung-Jin. 2002. “An Investigation of Production Process of Japanese Surugaban Bronze Typ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24: 89-129.
- Cho, Hyung-Jin. 2003. “Is Japanese Surugaban Chosun Typ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26: 5-23.
- Cho, Hyung-Jin. 2014.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Hushimi Edition in Japa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9: 65-101.
- Cho, Hyung-Jin. 2014.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Suruga Edition and Kishu Edition in Japa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0: 71-107.
- Cho, Hyung-Jin. 2017.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Koya Edition in Japa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2: 145-168.
- Cho, Hyung-Jin. 2017.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Shuzon Edition in Japa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0: 117-144.
- Cho, Hyung-Jin. 2018.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Tenkai Edition in Japa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6: 25-52.

